

# “한명에게라도 영향 줄 수 있는 음악 지향”

김수연 '라르브르 앙상블' 음악감독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김수연(사진)라르브르 앙상블 음악감독의 말이다. 김 감독의 음악은 무대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다. 최근 만난 자리에서도 음악보다 ‘사람’ 얘기를 먼저 꺼냈다. 김 감독이 걸어온 길 역시 그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는 연주자이자 교육자, 무대를 설계하는 기획자다. ‘라르브르 앙상블’은 프랑스어로 ‘나무 합주단’이라는 뜻을 지닌다. 김 감독이 2011년 창단한 이 단체는 매년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꾸준히 호흡해왔다.

전남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김 감독은 동대학원 재학 중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을 졸업하며 연주 영역을 넓혔다.

현재 라르브르 앙상블 대표로 지역 오케스트라 지휘와 문화예술교육, 공연 기획 등 현장 중심의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학교와 기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일상 공간을 무대로 확장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지금의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

2011년 창단...연주·교육·연출 등 병행  
장애예술인 협업 계기 ‘사람’ 중심 전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음악회 기획  
‘광주형 지원사업’ 선정...활동 기반 확보

는 생각, 그 단순한 고민이 출발점이었다. 김 감독은 정해진 곡을 재현하기보다 관객의 반응에 따라 흐름을 바꾼다. 완성된 결과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무대도 달라졌다. 공연장은 더 이상 한정된 공간이 아니다. 고아원과 아동센터, 복지관까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간다. 일상의 공간이 곧 공연장인 것이다.

김 감독은 유학 시절 경험을 계기로 장애인 예술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외국에서는 장애인이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귀국 이후 관련 활동을 찾아나섰다”고 말했다.

2021년 장애인들과 처음 앙상블을 꾸리며 깨달았다. 연주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 사람을 바꾸는 건 결국 ‘존중’이었다.



“그분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 경험 이후 김 감독은 음악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연주에서 사람을 마주하는 연주로 바뀌었다. 무대의 범위도 넓어졌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극역 할머니의 삶을 음악극으로 풀어냈고,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는 거리

공연을 이어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음악회도 기획했다.

음악은 더 이상 특정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독도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현장, 추모의 자리까지 기억과 현실이 만나는 곳으로 확장됐다.

김 감독의 선택 기준은 단순했다. 음악이 필요한 자리였다.

그곳에서의 공연은 달랐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락되고, 음악은 더 가까이 닿았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결과보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더 오래 남았다.

그 한마디가 김 감독을 다시 무대로 이끌었다. 올해 라르브르 앙상블은 광주형 장애인문화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속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

김 감독은 교육과 공연을 더 단단히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꾸준히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예산과 관객, 지속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다. 김수연 감독은 “대단한 결과보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람을 중심에 둔 음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주홍철 기자



##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무장에 길 걷기 행사’ 성료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최근 경양근린 공원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걸어봄, 즐거움, 나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도심 공원의 무장애 산책로를 걸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일상 속 무장애 환경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휠체어 이용이나 노약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나

눔길’을 함께 걷고 장애인 인식 개선 퀴즈를 풀며 무장애 환경 확장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18개 지역 기관과 단체가 정성껏 마련한 건강·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져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고혜영 복지관장은 “무장애 산책로를 함께 걷는 이 특별한 경험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는 날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건설 현장 안전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최근 지사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3개 기관 합동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 감독과 현장소장은 물론 작업반장과 근로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재 예방 교육과 2026년 변경되

는 산업안전 정책,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 사례, 지붕 작업 사전신고제 신규 시행 등 실무 중심의 핵심 정보를 공유했다.

범필재 지사장은 “안전은 일부 관리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최우선 기본 가치”라며 “시공사와 감독자,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 전남도, 귀농어귀촌 우수시책 ‘농식품부장관상’

전남도는 지난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와이팜 엑스포(Y-FARM EXPO)’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력육성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에서 귀농어귀촌 우수시책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남도가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착과 자립까지 연계한 정책 성과를 인정 받은 결과다.

전남도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체류형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새뜰하우스’ 사업으로 초기 주거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우수창업 활성화 사업’과 ‘행복동행 활동 지원’, ‘어울



림마을 조성’ 등을 통해 소득 기반 형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전남 귀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수도권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 영광 읍내지구대, 범죄 취약지 민·경 합동 순찰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는 “최근 영광읍 자율방범대와 부녀순찰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 취약지 도보 순찰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 순찰반은 읍내 중심상가와 인적이 드문 빈집 밀집 지역,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길 등을 구성구석 살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선제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했다.

김중신 경찰서장은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이 온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지역 협력단체와의 가시적인 합동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조선이공대 제13대 총장에 이응재 교수



조선이공대학교는 26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제13대 총장으로 이응재(사진)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총장 선거는 지난 21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직접 투표로 이뤄졌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1·2위 후보를 법인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응재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6월1일부터 4년간이다.

이 신임 총장은 생명환경화학공과 교수로 20여년간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에 힘써왔다. 교무임학처장, 학생취업처장,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학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대학 운영 역량 쌓아왔다.

이응재 신임 총장은 “중책을 맡겨준 법인사회와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총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우리 대학이 지역 대학을 넘어 전국 전문대학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선욱 기자



## 여수경찰-갯버터도나스 ‘치안 홍보’ 협약

여수경찰서는 “최근 지역 사업체인 ‘갯버터도나스’와 범죄 예방 활동 및 치안 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갯버터도나스는 향후 1년간 매 장내 홍보물 부착, 공식 SNS를 활용한 범죄 예방 콘텐츠 공유 등 경찰의 주요 치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혜택도 제공한다.

전남경찰 소속 직원들에게 도넛 세트 1만6천원으로 할인 판매하고, 기타 메뉴에 대해서도 10% 추가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김진우 갯버터도나스 대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보답하고 싶다”며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원석 경찰서장은 “지역 청년 기업과의 협력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치안 홍보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민·경 유익으로 협력해 안전한 여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광주 서부경찰, 행사장 일대 합동순찰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광주지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농성역, 양동시장역 등 지역 행사장 일대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축제장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 행사장 주변에서 선제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찰에는 서부경찰과 광역예방순찰대, 서구 자율방범연합회 특별순찰팀, 양동마을방범대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연성 기자

## 부음

▲오현례씨 별세, 장부남(광주경찰청 홍보팀장) 씨 장모상=발인 27일(월) 오전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303호 (062-606-4000)